



어머니

정은/가족치료 연구소장 www.tafamily.net

‘어머니’라는 한마디는 언제 들어도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그 누가 되었건 — 한 생명의 탄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머니의 희생이 전제된다. 모든 생명은 어머니를 거쳐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 우리 생명의 근원은 어머니라 할 수 있겠다.

가장 정성들여 우주의 생명력을 사랑으로 빛어 영롱한 아름다움의 빛을 안겨주는 것이 어머니의 품인듯 싶기도 한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아프고 피곤해서 울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고 엄마가 야단하셨어요. 얼마나 무안하고 수치스러웠는지.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나를. 엄마 곁에 가면 안되는구나.

동생이 태어난 후로 더 이상 어린애로 받아주지 않으며 밀쳐내니까 ‘동생 때문이다! 재만 없으면 모든 사랑이 내 차지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동생이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다가 저만큼 밀쳤었는데 그때 엄마가 ‘아니. 너. 왜...’ 말도 잊지 못하면서 ‘다 자란 애가 세상에! 네가 지금 몇살이냐면서... 그때 그 목소리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어요.

먹기만 하면 토했어요. 토해도, 토해도 챙겨주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열심히 공부하면 엄마곁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결정했었던 눈물겨운 이야기들은 이미 그 어린 시절의 긴긴 터널을 벗어났음에도 그때 형성된 인생 각본안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저리도록 아픈 저 마음밭을 짚어주지 못한 무심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 서늘해질 때마다 위로가 되었다는 만남이러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들은 한결같이 남이 나를 어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 관객이 되고, 또 주인공이 되면서 무대위에서 오로지 저 한분의 눈길과, 저 한분의 마음 담긴 꽃 한송이에 대한 바람을 키워 온 삶이라서 결혼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그녀에게 애써 입안에서만 머뭇거리는 말한마디와 더불어 잠자는 법, 눈뜨는 법, 걸음 걷는 법, 하루에도 열두번 저 먼 하늘 보는 법까지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시키면서 어머니들의 진실한 사랑 하나가 자녀들을 성장시켜 온전한 받아들임과, 온전한 공감으로 사랑하는 이와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상의 밝음과 아름다움을 담아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 자신이 신비를 만나는 바로 그곳에 항상 계심이기를 소망하면서...

